

韓國의 東아시아 思想研究

崔 在 穆*

1.

최근 한국에서는 동양철학 붐이 일고 있다고 할 정도로 동양철학 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서양/남의 것'보다도 '동양/우리 것'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최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철학적 방법론의 한국적 모색'¹⁾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사상 전반에 대한 연구도 본래도에 들어서서 다각적인 모색을 시도²⁾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한·중·일 세 지역 동아시아 사상 연구자간의 장기적인 학문교류와 공동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필자에게 부과된 논제는 '한국의 동아시아사상 연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논제는 '한국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종래 행해져왔거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사상연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연구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주제 자체가 가진 논의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짧은 시간과 적은 지면 안에서 그것을 전부 다루어내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의 근세유학 사상연구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대략 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사상연구의 한 경향을 — 필자의 시야에 들어온 인상적인 것들을 위주로 — 記述하여 향후 한·중·일 세 지역 학자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한 약간의 윤곽 내지 전망을 이끌어 내어 보고자 한다.

* 嶺南大學 教授

- 1) 이러한 작업의 집약은 沈在龍 외, 『한국에서 철학하는 자세들』, (서울:集文堂, 1968)에 잘 드러나 있다.
- 2) 예를 들면, 이러한 분위기 만들기에 金容沃(前고려대)의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민음사, 1985) 등등의 정열적인 저술작업이 일조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김교빈·이한구, 『동양철학에세이』(서울:동녘, 1993)와 같은 류의 쉽게 쓰여진 동양철학 소개서적들, 기타 많은 동양학관계 번역/편역서와 <예문지/예문서원>과 같은 동양철학관계 서적만 출판하는 전문출판사의 출현, 석박사급의 젊은 동양철학 연구자의 급증과 그들의 활발한 연구와 번/편역작업도 여기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2.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행해지는 학문연구도 결국은 그 지역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개의 학자들의 시각, 즉 사물에 대한 관심이나 관점, 사고방식에 의해 많은 부분 양상을 달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儒學연구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문학자 趙東一교수(서울대)는 『우리 학문의 길』이란 책³⁾ 속의 「일본 철학사가 있는가?」라는 글에서, 동아시아 記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⁴⁾하고 나서 “학문에는 총괄학문과 개별학문, 理論學問과 實證學問의 양면이 있다. 일본은 총괄학문 또는 이론 학문은 소홀하게 한 반면 개별학문이나 실증학문은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내는 대단한 장점을 보이고 있어 높이 평가된다. 일본의 장점이 우리 단점이어서 우리는 개별학문이나 실증학문에 약점이 많다. 그래서 두 나라는 서로 장점을 배워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72쪽)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한일 양 지역의 학술문화의 특징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파악하였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종래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 오던 것을 잘 정리하여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한국(조선시대) 儒學의 한 경향을 이해하는 틀로서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유학이, 일본의 유학처럼 ‘눈 앞에 드러난 것’(目のまへなること)⁵⁾ 즉 삶 주변의 현실적 구체적인 복잡하고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 부단히 정력을 쏟기 보다—조선시대의 여러 논변들 예컨대 李彦迪과 曹漢輔 사이의 「無極太極論辨」, 李滉과 奇大升사이의 「四端七情論辨」, 權尙夏의 門人 韓元震과 李柬에 의해 본격화된 「人物性同異論辨」(일명 湖洛論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⁶⁾—오히려 ‘사물의

3) 趙東一,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4) 그는 “근래 일본의 젊은 학자 松島隆裕 외 세 사람이 『동아시아 사상사』(松島隆裕外3人, 『東アソ思想史』, 조성을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1))라는 책을 내어, 중국·한국·일본의 사상사를 한꺼번에 다루려고 했다”(60쪽)는 것을 말하고, “松島隆裕 외 세 사람이 이미 낸 『동아시아 사상사』를 다시 저술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의 사상창조를 후대에 생김 민족국가들 경계로 해서 구획하지 말고, 宋代 이전에 중국에서 이룩된 사상은 한문 문화권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열린 시각이 요망된다”(71쪽)고 하였다

5) 일본의 양명학자 中江藤樹의 「翁問答」上卷之末, 『藤樹先生全集』3, (東京: 岩波書店, 昭和15), 136쪽에 나오는 말

6) 한국사상계에서 일어난 제반 논쟁에 대해서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서울: 예원서원, 1995)을 참고 바람 그리고 이러한 개별 논변들에 대한 연구는 韓國哲學史研究會 편, 『韓國儒學思想論文選集(1-36)』을 참조바람. 그리고, 최근 각 논변에 대한 충실한 연구서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四端七情論에 대해서, 尹絲淳편, 『四端七情論』, (서울: 서광사, 1992)이, 人性物性論에 대해서는 한국사상연구회 편, 『인성물성론』, (서울: 한길사, 1994)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사상계의 논쟁은 중국사상계와 일본사상계의 논쟁과 비교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중국의 논쟁은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서울: 예문서원, 1994)을, 일본의 논쟁은 今井淳·小澤富

근본적인 이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탐구가 그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한국사에 신유학이 수용된 것은 중국에서 신유학이 성립한 후 약 3세기가 지난 후였으나, 한국에서의 신유학은 출발이 그처럼 뒤늦었으면서도, 일단 수용된 이후에는 중국보다도 더 철저하고 진지한 발달상을 보인 증거로서 평가되기도 한다.⁷⁾ 어쨌든 '사물의 근본적인 이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탐구'라는 조선시대 유학의 학문적 경향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현대 한국의 유학연구자들의 사고 속에서 전승되어 유학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한국철학사 서술의 관점에 있어서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의 체계'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하나의 주된 흐름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외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澤井啓一氏는, 비교사상적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한 '동아시아세계에 있어서 유교'라는 논문 속에서 중·한·일의 학문연구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켜서 말하고 있다.⁹⁾

중국의 유교연구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던 탓에 유물론·유심론의 대립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유교」의 言說을 정리하는 것이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¹⁰⁾ 또 한국의 연구에서는 「유교」를 동양의 철학으로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형이상학적인 해명(강조는 인용자)이 연구의 주류라고 한다.¹¹⁾ 더욱이 社會還元적인 지향성이 강한 일본의 연구에 있어서도, 사상이 끼친 사회적 영향이라는 관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역시 사상의 체계성에 관심이 향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¹²⁾

大編, 『日本思想論爭史』, (東京: ぺりかん社, 1979)를 참조 바람.

- 7) 이태진, 「한국의 학문적 전통과 서양 학문에 대한 반응」, 『현대의 학문체계』, (서울: 민음사, 1994), 79쪽 참조
- 8) 손영식, 「현대한국철학논쟁: 오늘날 한국철학에서 두 가지 쟁점」,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306쪽 참조.
- 9) 小山由丸·宮野升宏 編, 『講座 比較思想-轉換期の人間と思想・比較思想の現在』, (東京: 北樹出版, 1993), 56쪽 참고
- 10) 澤井씨는 각주에서 '유심론 유물론이라는 카테고리에 의한 분류는 文革의 遺習으로서 70년대 말기까지 계속되었지만 현재에는 실증적인 연구로 이행하고 있다' 근년의 중국에 있어서의 「유교」연구에 대해서는 上田健次郎, 「中國における宋明理學研究」, 『東洋の思想と宗教』 四號, (早稲田大學東洋哲學會, 1987) 및 張立文 「一九八〇年代の中國に於ける宋明理學研究について」, 『中國-社會と文化』 四號, (東大中國學會, 1989)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고 말한다
- 11) 澤井씨는 각주를 통한 한국의 「유교」연구에 대해서 밝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1989년 9월 韓南大學校에서 개최된 심포지움(「한·일 양국에 있어서 유교의 전개」)에 참가한 인상, 1990년 6월 早稲田大學東洋哲學會에서 개최된 고려대학교 井絲淳 교수의 강연을 들은 인상, 知人 權泰日氏(大東文化大學講師)으로 부터 얻은 지식, 李基東 교수의 저서 『東アジアにおける朱子學の地域的展開』, (東京: 東洋書院, 1987)를 읽은 소감에 기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12) 澤井씨는 각주에서 '현재 시점에서 일본의 「유교」연구에 대해서 정리된 소개는 없고 연구상에서 얻은 필자의 인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그는 荻生徂徠연구에 한정되어 있는데 平石直昭, 「戰中・戰後徂徠論批判」, 『社會科學研究』 三九卷 一號, (一九八七)에 연구 경향이 분석되어 있음을 附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학문연구가 지역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고유한 관점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도출된 언설은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우리는 어떤 傾向性 내지 性向에 대한 도식적인 단순화 획일화의 작업이 일면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종 전면적 진리로 간주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¹³⁾ 중국철학 특히 禪의 단순성에 대해 馮友蘭이, “철학자 또는 철학도는 부정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실증적 방법을 거쳐야 하며 철학의 단순한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복잡한 경지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한다.”¹⁴⁾는 지적이 암시 하듯이, 우리는 각 지역의 학술문화나 그 경향성, 성향에 대한 도식화 단순화된 평가를 내리기 전에 적어도 그것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그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필자는 지역적으로 학문연구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가 있음을 부정할 의도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각 지역의 학자들이 개방적인 태도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시각들을 인정하고 또 발전적으로 수용해가면서 공동연구나 학문교류를 추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

최근 한국의 儒學 관련 연구는 종래의 편협성을 벗고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양명학연구의 활성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0년대 까지 한국의 조선시대 유학연구의 대부분은 유학자의 理氣·心性이나 실학¹⁵⁾에 관한 주제였으며, 특히 이 중에서 李滉(退溪)·李珣(栗谷)에 관한 논문¹⁶⁾이 많아 유학 연구가 退·栗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고,¹⁷⁾ 조선시대에 異端으로서 취

13) 예를 들면 이러한 경향성·성향을 곧바로 ‘民族性’으로 등식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양적 사유방식’(‘중국인의 사유방식’ ‘한국인의 사유방식’ 등등)·‘서양적 사유방식’과 같이, 종래의 동서양 학문의 특질 비교와 같은 도식적·획일적 파악방식이 근대초기 동·서양의 사상문화 접촉시, 당시 학자들의 사물인식 ‘감각’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므로 당연히 현재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체적으로 검토·비판되어야 하듯이, 한 지역의 학문적 특질도 어디까지나 ‘정도·양적분포·경향성·성향의 차이’이지 ‘본질적 차이’가 아니며, ‘약간의 민족·지역·어떤 시기·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지 ‘한 지역의 모든 시기와 사회전반에 적용될 수는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4) 馮友蘭, 『中國哲學史』, 鄭石在 옮김, (대구 형설출판사, 1977), 427쪽

15) 종래의 실학에 대한 연구는 弗威文化社(1993)에서 간행한 총 12책의 『韓國實學思想論文選集』에 수록되어 있음.

16) 퇴계연구전반에 대해서는 退溪學研究院 간행의 『退溪學報』를 참조바람.

17) 金吉煥, 『朝鮮朝儒學思想研究』, (서울: 志社, 1980), 12-13쪽 참조 그리고, 퇴계연구 전반에 대해서는 退溪學研究所 간행의 『退溪學報』를 참조 바람

급되던 양명학 연구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였다. 80년대 이후, 조선시대의 충실한 정주학자였던 李滉을 선두로 하여 그와 학문적 맥을 같이하는 유학자들의 눈을 통하여 정통/이단이라는 도식적인 틀에 의해 파악된 근세적인 陽明學像과 같은 편향된 시각이나 태도를 넘어서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의 양명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退·栗, 혹은 실학 중심으로 연구되던 조선시대 유학에 대한 관심과 시야를 보다 한층 넓힐 수 있었고,¹⁸⁾ 나아가서는 조선시대 사상사의 다양성을 논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양명학에 대한 연구는 종래의 부진했던 연구성과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추진되어 온 탓이기도하다. 최근에는 양명학의 붐이 라고 말할 정도로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고,¹⁹⁾ 일본 양명학에 대한 소개²⁰⁾나 韓·日양명학의 비교²¹⁾와 그를 통한 한국 양명학의 특성 규명에도 미치고 있다.²²⁾ 그리고 상산학과 양명학의 관계를 밝힌 단행본도 출판되어²³⁾ 상산학연구²⁴⁾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양명학의 집대성자로 불리는 霞谷 鄭齊斗의 양명학 전통을 계승하는 '江華 양명학과'를 포함한 한국 근대의 양명학 전개 등의 연구²⁵⁾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타지역(중국, 일본)의 양명학과 충실한 비교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양명학과 관련하여 元代사상관계²⁶⁾나 理學에서 心學으로 전환되는 명초의 사상가들(예를 들면 陳獻章, 湛若水)의 사상에 대한 특질규명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나 明末·清初의 사상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²⁸⁾

18) 이 당시의 양명학 관계 주요 저작으로서는, 尹南漢, 『朝鮮時代の 陽明學研究』(서울 集文堂, 1982)과 劉明鍾, 『韓國의 陽明學』(서울: 同和出版社, 1983) 등이 있다.

19) 한국 양명학의 연구에 대해서는, 韓國哲學史研究會 편, 『韓國의 陽明學』(서울: 弗成文化社, 1993)에 수록된 논문을 참조 바람.

20) 宋彙仁, 『陽明學의 日本的 受容展開에 관하여』, 『伏賢漢文學』 7집(伏賢漢文學會, 1991 11) 崔在穆, 『나카에 토오주 사상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現代와 宗教』 14집(大邱: 以文出版社, 1991)

21) 최재목, 『동아시아에 있어서 陽明學의 한 전개-鄭霞谷과 中江藤樹의 〈致良知〉해석을 중심으로-』, 『哲學論叢』 9집, (嶺南哲學會, 1993 9)

22) 최재목, 『양명학의 한국적 변용-霞谷 양명학 사상의 동아시아적 위치』, 『철학논총』 10집(영남철학회, 1994)을 참조 바람.

23) 金吉洛, 『象山學과 陽明學』, (서울 예문서원, 1995)

24) 국내의 상산학 관련 연구 목록은 김길락, 『象山學과 陽明學』, 377쪽의 〈상산학 관련 논저 목록〉을 참조 바람.

25)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목록은 김길락, 『象山學과 陽明學』, 359-65쪽의 〈한국 양명학 관련 논저 목록〉을 참조 바람.

26) 다행스럼게도 (사) 圃隱思想研究院 편, 『元代性理學』(서울: 포은사상연구원, 1993)이 간행되었음.

27) 한국공자학회에서 1995년 10월 행사로서 명초사상과 양명학의 성립분파에 이르기까지 기획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28) 여기에 대해서는 裴永東, 『明末清初思想』(서울: 민음사, 1992)과 吳金成 외, 『明末清初社

종래 조선시대 유학의 연구는 사실 유학자들의 사상 그 자체 연구(29)에만 머무는 경향이 강했고, 그러한 개별사상가들의 사상이해를 토대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주자학, 양명학, 실학, 氣學을 다른 지역의 유학 경향과 비교검토한 연구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그러므로 중국유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유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필수불가결하게 행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지만, 중국은 물론 일본의 유학사상까지 안목에 넣고 '동아시아의 유학전개'라고 하는 폭넓은 시야에서 한국의 유학사상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친 위에 한국 유학의 독자성을 발견해가고자 하는 노력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다만, 예외적으로 退溪 李滉의 사상은 그의 학문이 조선의 사상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영남을 배경으로 한 主理的인 退溪학파를 형성해왔고 또 일본 儒學(朱子學)계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이유로, 퇴계학과 관련된 일본의 사상, 내지 사상가의 연구가 행해졌던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³¹⁾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伊藤仁齋와 같은 古學派³²⁾나 中江藤樹를 開祖로 하는 일본양명학,³³⁾ 近世日本の 朱子學 受容과 그 變容에 관련한 논문³⁴⁾도 선보이게 되어 국내에서의 일본 사상 연구의 길이 조금씩 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³⁵⁾

그런데, 유학연구에서 불 때, 유학과 불교, 도교와의 교섭관계(이른바 3교 교섭

會의 照明)(서울·한울아카데미, 1990)을 참조 바람

- 29) 참고로 『한국유학사상사』는 이미 張志淵·玄相允·李炳崧·裴宗鎬의 저술이 있었으며,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人作의 형태로서 崔英成씨에 의해 1994년 10월에 亞細亞文化史에서 『한국유학사상사(고대·고려편)』제1권이 그리고 95년 3월에 제2(조선전기편), 제3권(조선 후기편)이 간행되었으며, 곧 제4권(근대·현대편)이 간행될 예정이므로 한국유학사의 체계적 연구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 30) 예컨대, 동아시아에 있어서 주자학의 전개에 대해서는 이기동, 『東アジアにおける朱子學の地域的展開』, (東京:東洋書院, 1987)이 아마도 비교연구로서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源了圓은 '실학'의 개념에 대한 한·일 비교를 행하고 있으며(源了圓, 『近世初期實學思想の研究』, (東京:創文社, 1989)), 小川晴久는 실학의 개념에 대해서 중국, 한국, 일본과 비교론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한 것이 있다(小川晴久, 『朝鮮實學と日本』, (東京 花傳社, 1994)).
- 31) 이에 관련된 현재의 연구는, 李退溪를 일본 주자학의 선구로서 보고 『李退溪』『山崎暗齋と李退溪』『日本朱子學と朝鮮』의 책을 쓴 阿部吉雄의 연구 관점이 이 방면 연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劉明鍾, 『退溪學の日本的展開』, 『第六回 韓中日退溪學國際學會發論文集』, (退溪學釜山研究院, 1993. 8. 9), 92-93쪽 참조
- 32) 李基東, 『伊藤仁齋사상의 특징』, 『東洋哲學研究』3집, (東洋哲學研究會, 1982)
- 33) 주(20), (21)참조바람.
- 34) 宋彥七, 『近世日本の朱子學受容과 그變容에 관하여』, 『韓國의哲學』22집,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1994). 그리고 동아시아 3지역의 주자학 비교는, 이기동, 『東アジアにおける朱子學の地域的展開』을 참조 바람.
- 35) 참고로 국내에 일본사상사 관계 번역서도 간행되고 있는데, 松島隆裕 外 3인, 『동아시아 사상사』, 조성을 옮김, 그리고 室本順一郎, 『일본사상사』, 김석근·이근우 옮김, (서울:이론과 실천, 1989)나 마루야마 마사오, 『日本政治思想史研究』, 김석근 옮김, (서울:통나무, 1995)는 일본사상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에 속한다. 다행히도 부분적으로는 불교 도교가 한국에 수용되어 어떤 방식으로 굴절, 변용되는가하는 점도 밝혀지고 있으나³⁶⁾ 장차 여기에는 유학자의 불교, 도교연구와 더불어서 불교, 도교사상가의 유학연구에 대한 실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³⁷⁾ 그리고 유교와 기독교와의 교섭관계³⁸⁾나 사상적 접맥의 문제³⁹⁾에 대해서도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타 유학자들의 독창적인 경전주석⁴⁰⁾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전주석은 단순히 경전해석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상가나 그 시대의 사상적 관점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또한 최근 학계에서는 각종 색인, 사전간행작업도 학적인 역량의 축적에 의해 서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²⁾

마지막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본다면, 유감스럽게도 한국 나름의 새로운 관점에 입각하여 쓰여진 중국사상사 내지 중국철학사가 아직 없으므로 이 방면에 대한 많은 학문적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金忠烈 교수(高麗人)가 일곱권⁴³⁾으로 된 체계적인 중국철학사 저술계획을 밝혔고, 이미 제1권 『中國哲學의 源流편』⁴⁴⁾을 간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김충렬 교수의 중국철학사 계획은 방대한 작업이므로, 또 한편으로는 간략하나마 짜임새있게 쓰여진 단행본의 '중국사상사' 내지 '중국철학사'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韓·中·日 학자들의 知性을 결집하는 공동 작업에 의한 '동아시아 사상사' 내지 '동아시아 철

36) 예를 들면 朴世堂의 도가연구와 같은 경우

37) 조선성리학에 있어서 노장인식의 문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李鎮沐, 「退溪哲學의 養生思想에 관한 研究」, 韓國道敎思想研究會편, 「韓國道敎의 現代의 照明」, 韓國道敎思想研究會叢書·4,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2)

宋恒龍, 「栗谷 李珥의 老子研究와 道家哲學」 위와 같은 책

李相坤, 「性理學의 老莊認識-南塘 韓元震의 極本窮源論」, 韓國道敎思想研究會 편, 「道敎의 韓國의 受容과 轉移」, 韓國道敎思想研究叢書·8,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38)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왜관 분도출판사, 1979)를 참조 바람.

39) 예를 들면, 유교의 天, 天命사상이 기독교의 하느님 사상과 어떻게 접맥되는지 등이 될 것인데, 정대위, 「용비어천가에 보이는 천명사상의 종교사적 의의」,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 (서울: 신학연구소, 1986) 같은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40) 예를 들면, 脫朱子學風과 독창적인 경전주해로서 유명한 尹鐸의 「讀書記」, 朴世堂의 「思辨錄」, 崔錫鼎의 「禮記類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崔英成, 「한국유학사상사(조선후기편·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265-278쪽 참조

41) 한 예로 한국에 있어서 「대학·인구의 演變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 朴浣植, 「大學·大學或問·大學講語」, (서울 이론과 실천, 1993)은 그 좋은 작업이 될 것이다

42) 예를 들면 근래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서울: 동녘, 1989)와 유교사전 편찬위원회 편, 「儒敎大事典」, (서울: 박영사, 1990),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7)」, (서울: 웅진출판사, 1991)이 간행되어 동양철학사상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43) 즉 中國哲學의 源流/先秦諸子哲學/兩漢經學/魏晉玄學/隋唐大乘佛教/宋元性理學/明清實學 (以上의 題目은 變更可能)

44) 김충렬, 「中國哲學史(1.中國哲學의 源流편)」, (서울: 藝文書院, 1994)

학사'의 執筆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일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그것들이 쓰여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比較思想研究나 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교사상은 단순히 동서사상의 비교연구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한 지역의 사상이나 동일지역의 사상에 대해서도 그 역사적(시간적·공간적) 전개의 諸相을 여실히 파악하고 나아가서 개개의 사상에 대한 특성과 다른 사상의 특성을 관련시켜 이해하는데에도 필요한 중요한 방법론⁴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지금까지 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사상연구의 한 경향을 略述하였다. 그것도 동아시아사상(儒學) 관련 연구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기에, 각 연구의 입장이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현재 남한의 동아시아사상연구가 그 중심이 되었기에, 중국의 延邊지역과 北韓지역에서 종래 이루어져왔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사상의 연구경향, 시각에 대한 검토⁴⁶⁾는 부득이하게 제외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미완의 작업들을 메꿔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45) 高橋進, 『李退溪와 敬의 哲學』, 安納周·李基東 옮김, (서울 新丘文化社, 1986), 287쪽 주(1) 참조.

46) 북한의 한국철학사 서술의 주된 관점을 한국과 비교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한 연구로서 손영식, 「현대한국철학논쟁. 오늘날 한국철학에서 두 가지 쟁점」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